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인숙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xual Self-assertiveness on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의 정도와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총 155명이었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대상자 가정의 경제수준($F=3.145, p<.05$), 종교유무($t=2.893, p<.01$), 대학생활 만족도($F=12.854, p<.001$)에 따라,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은 가족유형($F=5.203, p<.01$)과 대학생활 만족도($t=4.594,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r=.318,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r=-.275, p=.001$),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r=-.234, p=.003$)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225, p<.01$)과 성적 자기주장($\beta=-.162, p<.05$)이었으며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8.8%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and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on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among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This study included 155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via a questionnaire from June 28 to July 2, 2023.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version 21.0 software. Based on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ir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tandards, religion, and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In ad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ir sexual assertiveness according to the family pattern and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Moreover,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Also,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and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Furthermore, among the variables that affected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8.8% of the variation was explained by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Based on these results, universities should develop and manage education programs that are effective in promoting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Inn-Sook Lee(Gangdong Univ.)

Email: ilee001@hanmail.net

Received August 28,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September 20,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데이트 폭력은 여러 지역과 문화, 연령대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가장 높은 발생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시기로 대학생 시기를 들고 있다[1,2]. 데이트 폭력이란 이성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과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어적, 성적, 심리적, 폭력 행동을 의미한다[3].

최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 가운데 약 78%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4]. 또한 21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데이트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여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의 관련성을 시사하였다[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존중하는 태도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성이 높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져 원치 않는 성접촉 경험에 취약할 수 있다[7].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성병에 걸리거나 원치 않은 임신 또는 인공유산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4].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분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수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자신의 표현을 억제하는 사회화된 언어 및 메시지 속에서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조차 명확한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8].

따라서 상대방의 성욕구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성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성적 자기주장이라고 한다.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9]. 즉, 성적 자기주장이 분명할 경우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데

이트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이성관계의 당사자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의 가해나 피해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즉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갈등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1].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돌보게 될 것이다. 이들이 만나게 될 많은 환자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 환자도 포함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우리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전인적 간호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과 같은 사회 현상은 연인간의 폭력인 만큼 지역사회에 근무하게 될 지역사회 간호사의 경우 대학교 보건실이나 산업장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대상자들에게 간호사 자신이 지니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관련 예방법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봄으로써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및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URL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각 학년별 대표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설문 링크를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각 대표를 통해 학년별 단독방에 설문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 3.1.9.2를

이용하였으며 효과 크기는 Koo와 Oh[9]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독립변수 8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고 필요한 표본 수는 128명 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6명으로 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수는 155명(93.4%)으로 최소 표본 수를 초과하였다.

2.3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에 앞서 URL 설문지의 상단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에 관한 문장을 기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위해서만 사용되고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설문조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2]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 총 10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였으며 측정점수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Jeo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2.4.2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해 Patricia 등[14]이 개발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Choi[1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파트너가 가슴을 만지려 할 때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거절할 것이다)' 등의 원치 않는 성 접촉 시 거절관련 6개 문항과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해도 내가 원하면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등의 성 접촉 시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점수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신뢰도는 Choi(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로 나타났다.

2.4.3 데이트 폭력허용도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 [16]이 개발한 폭력 정당화 척도를 Nam[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가지 상황에서 연인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괜찮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측정점수는 최소 8점에서 최고 3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신뢰도는 Nam[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3명(14.8%), 여학생 132명(85.2%)이었고, 학년은 1학년 37명(23.8%), 2학년 31명(20.0%), 3학년 26명(16.8%), 4학년 61명(39.4%)이었다. 경제수준은 '상'이 23명(14.8%), '중'이 92명(59.4%), '하'가 40명(25.8%)이었으며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61명(39.4%)이었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정 120명(77.4%), 한부모가정 22명(14.2%), 조손가정 9명(5.8%), 재혼가정 4명(2.6%)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 만족이 80명(51.6%), 보통이 66명(42.6%), 불만족이 9명(5.8%)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7 ± 0.86 점, 성적 자기주장은 5점 만점에 평균 4.37 ± 0.69 점,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56 ± 0.66 점이었다[Table 1].

Table 1. Mean Score of Variables

Variable	Range	Mean \pm SD
Self-esteem	1~5	3.87 ± 0.86
Sexual Assertiveness	1~5	4.37 ± 0.69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1~4	1.56 ± 0.66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경제수준 ($F=3.145, p=.046$), 종교유무($t=2.893, p=.045$), 대학

생활 만족도($F=12.85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유무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 만족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가족유형($F=5.203, p=.002$)과 대학생활 만족도($F=4.594, p=.01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유형에 있어 한부모가정의 성적 자기주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성적 자기주장이 재혼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성적 자기주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에 대해 보통, 불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Table 2. Difference of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Variable	Categories	n(%)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Mean \pm SD	t/F(p)	Mean \pm SD	t/F(p)	Mean \pm SD	t/F(p)
Gender	Male	23(14.8)	3.80 ± 0.89	-.430 (.668)	4.13 ± 0.67	-1.792 (.075)	1.41 ± 0.68	-1.135 (.258)
	Female	132(85.2)	3.88 ± 0.86		4.41 ± 0.69		1.58 ± 0.66	
Grade	1	37(23.8)	4.10 ± 0.75	2.044 (.110)	4.27 ± 0.83	.947 (.420)	1.53 ± 0.64	.287 (.835)
	2	31(20.0)	4.03 ± 0.79		4.51 ± 0.60		1.60 ± 0.67	
	3	26(16.8)	3.75 ± 0.85		4.46 ± 0.67		1.47 ± 0.54	
	4	61(39.4)	3.71 ± 0.86		4.37 ± 0.69		1.59 ± 0.72	
Economic standard	Upper	23(14.8)	3.91 ± 0.93	3.145 (.046)	4.42 ± 0.66	1.475 (.232)	1.52 ± 0.53	.183 (.833)
	Middle	92(59.4)	3.98 ± 0.77		4.42 ± 0.66		1.54 ± 0.63	
	Lower	40(25.8)	3.58 ± 0.97		4.21 ± 0.77		1.61 ± 0.81	
Religion	Yes	61(39.4)	4.11 ± 0.83	2.893 (.004)	4.38 ± 0.68	.230 (.819)	1.58 ± 0.67	.374 (.709)
	No	94(60.6)	3.71 ± 0.85		4.36 ± 0.71		1.54 ± 0.66	
Family pattern	Parents	120(77.4)	3.95 ± 0.83	2.564 (.057)	$4.38 \pm 0.68a$	5.203 (.002)	1.61 ± 0.66	1.339 (.264)
	Single parent	22(14.2)	3.71 ± 0.95		$4.58 \pm 0.55a$		1.38 ± 0.72	
	Grandparents-grandchildren	9(5.8)	3.20 ± 0.95		$4.18 \pm 0.79a$		1.44 ± 0.53	
	Remarriage	4(2.6)	3.65 ± 0.66		$3.19 \pm 0.49b$		1.19 ± 0.38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80(51.6)	$4.18 \pm 0.74a$	12.854 (.000)	$4.52 \pm 0.60a$	4.594 (.012)	1.46 ± 0.62	2.394 (.095)
	So-So	66(42.6)	3.51 ± 0.87		4.25 ± 0.73		1.62 ± 0.64	
	Unsatisfied	9(5.8)	$3.62 \pm 0.86b$		$3.95 \pm 0.95b$		1.90 ± 1.00	

Scheffe test: a,b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r=.318, p<.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r=-.276, p=.001$),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r=-.234, p=.003$)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Self-esteem		.318(<.001)	-.276(.001)
Sexual assertiveness			-.234(.003)

3.5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지수 검정 결과, 2.036으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는 .89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13에서 1.252로 모두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의 가설을 만족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426, p<.001$).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beta=-.225, p<.01$), 성적 자기주장($\beta=-.162, p<.05$)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은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8.8% 설명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Variable	B	SE	β	t(p)
Constants	2.905	.352		8.248(<.001)
Self-esteem	-.173	.062	-.225	-2.766(.006)
Sexual Assertiveness	-.155	.078	-.162	-1.994(.048)
$R^2=.100, \text{Adj } R^2=.088, F=8.42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및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ong[18]의 3.03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은 5점 만점에 평균 4.37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Koo와 Oh[9]의 4점 만점에 3.29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56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했던 Koo와 Oh[9]의 데이트 폭력허용도 1.86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Jung과 Kang[11]의 데이트 폭력허용도 1.76점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경제수준, 종교유무,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중'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불만족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였다.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19] 결과에서 대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공 만족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가족 유형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정인 경우 성적 자기주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성적 자기주장이 재혼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성적 자기주장이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에 대해 보통, 불만족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차이를 다룬 연구 결과를 찾지는 못 했으나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의 경우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성적 자기주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표현이 분명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지 있게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성행동에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Jeon[21]의 연구결과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Han[20]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Woo와 Park[7]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18]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폭력적 상황을 허용하는 태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Oh[9]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은 인간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성적 욕구와 충동성을 적극적인 자세로 통제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에서 주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20]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폭력적 태도나 행동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높아질수록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낮아졌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성행동에 있어 자기주장이 분명한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폭

력을 허용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상황에서 자기감정의 균형과 자부심, 당당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즉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므로[22]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허용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성적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로 Shon과 Jeong[23]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포, 두려움, 불안 지나친 이타심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의사소통이나 성 지식과 같이 성교육에 집중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7] 성적 자기주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성적 자기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허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허용도를 낮추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References

- [1] C. M. Rennison, S. Welchans. Intimate partner violence(No. NCJ 178247).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Justice, 2000.
- [2] M. A. Straus.(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No.7. pp.790-811, 2004.
- [3] O. J. Kwon, Y. E. Jang, "The effect of 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on dating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Locality and Globality*, Vol.43, No.1, pp.235-263, 2019.
DOI: <https://doi.org/10.33071/ssricb.43.1.201904.235>
- [4] R. E. Kim, S. M. Koo, & S. M. Choi. "The differences in harassment behavior an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244-25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7.244>
- [5] Y. S. Choi, E. H. Lee, & E. J. Lee.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Keimyung Nursing Science*, Vol.21, No.1, pp.23-33, 2017.
- [6] M. Y. Joung, L. J. Lee. "Influence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 Health Issues*, Vol.25, No.2, pp.92-101, 2020.
- [7] C. H. Woo, J. Y. Park, "The influence of voice behavior, self-esteem and sexual knowledge on sexual assertiv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405-413, November,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4.405>
- [8] S. J. Jang, D. H. Cha, S. W. Lee, "Woman and assertiveness training",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21, pp.1-40, 1992.
- [9] S. M. Koo, E. Y. Oh,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n sexual assertiveness :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12, pp.158-167,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158>
- [10] H. J. Lee, M. S. Yoon, Y. E. Kim, & S. Y. Lee,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3, pp.115-125,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3.115>
- [11] G. H. Jung, M. K. Kang,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32-4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33>
- [1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e University Press, 1965.
- [13] B. J. Jeon, "Self-concept study on the measurement possibilities", *Graduate School of Natural Science Generation*, Vol.11, No.1, pp.107-130, 1974.
- [14] M. Patricia, Q. Kathryn,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No.4, pp.790, 1997.
- [15] M.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74, 2005.
- [16] L. Foo, G. Margolin,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0, No.4, pp.351-377, 1995.
- [17] H. M. Nam,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pp.76, 2003.
- [18] S. H. H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experience, self-esteem, an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5, pp.197-208,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5.197>
- [19] I. S. Lee, "Study on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empathy in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358-365, 2019.
DOI: <http://doi.org/10.5762/KAIS.2019.10.358>
- [20] H. L. Lee, Y. J. Han, "The effec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sser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 pp.454-460, 2021.
DOI: <http://doi.org/10.5762/KAIS.2021.22.1.454>
- [21] H. K. Jeon. *The effect of medium self-esteem and self-sil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stable attachment and sexual assertivenes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p.55, 2021.
- [22]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9, No.3, pp.166-175, September, 2013.
DOI: <http://dx.doi.org/10.4069/kiwhn.2013.19.3.166>
- [23] K. S. Shon, S. M. Jeong, "The Mediation effects of sexual assertivenes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1, No.3, pp.441-457,2016.

이 인 숙(Inn-Sook Lee)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보건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보건교육, 학교보건